문(文) : 삶과 꿈 기말리포트

문: 삶과 꿈 에세이
당신의 내면에는 누가 숨쉬고 있는가

201921795 문화콘텐츠학과 임명진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들 말한다. 그리고 선택은 필연적으로 고민을 수반한다. 차이가 있다면 그 종류에 따른 고민이 가벼운지 무거운지가 각자 다를 뿐일 것이다. 그 고민은 사람들마다 다르고, 또 그들에게 갖는 의미도 제각각 다르다.
나에게 고민이 있었냐고 묻는다면, 고민이 너무 많다는 것이 내 고민이었다. 더 보편적인 말로 바꾼다면, 걱정이 너무 많았다는 것. 뚜렷한 고민이라기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그 상황으로 인해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불안감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고민을 줄이기 위해 고민하는 과정은 결국 또 고민의 증폭으로 이어졌다. 이유를 생각해보면, 최대한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계산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 그것이 어느 정도의 득과 실을 가져오는지에 대해 작은 부분까지 생각해보는 습관이 내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최대한 완벽한 결과를 가져오려고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웠고,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조급해지며 스트레스를 받거나 좌절하게 되었던 것 같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문학작품에서 나의 이런 모습과 굉장히 유사한 인물을 찾을 수 있었다. 좋은 말로 하면 신중한 모습, 사실은 이리 재고 저리 재는 극단적 우유부단함을 가진 인물. 그의 이름은 햄릿이다. 햄릿은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쓴 희곡이며 그의 4대 비극 중 하나인 ‘햄릿’에 등장하는 주인공이다. 아버지가 살해당하고, 숙부에 대한 복수심을 키우지만 고뇌의 연속으로 결국은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세상은 이런 햄릿의 성격에 주목했다.
그 예시로 러시아의 작가 투르게네프는 세상 사람들의 성격을 둘로 나누었다. 서로 완전히 반대인 ‘햄릿형 인간’과 ‘돈키호테형 인간’으로 말이다.

햄릿형 인간은 앞에서 언급했듯,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와 같은 대사를 남기며 부조리한 현실에 고민하고 끝없이 사유하는 햄릿같은 성격의 사람들을 의미한다. 극단적 우유부단함에 치우친 사람이라는 뜻이다.
반면 그가 분류한 돈키호테형 인물은 어떠한 일에 저돌적으로 덤벼드는 사람들의 특성을 의미한다. 미겔 데 세르반테스의 소설 『돈 키호테 (Don Quixote)』의 주인공인 돈 키호테는 자칭 편력기사로, 자신의 이상과 신념을 따르기 위해 앞 뒤 가리지 않고 달려드는 인물이다. 풍차를 거인이라고 생각하고 돌진하는 장면은 그의 성격을 대변하는 유명한 일화일 것이다. 햄릿의 성격과는 대비되는, 극단적인 저돌성이 잘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햄릿형 인간과 돈키호테형 인간 둘 중 어느 쪽이 더 낫냐고 묻는다면, 그 정답은 없다.
두 인간상 모두 인간 본성이 지닌 양극단을 갖기 때문이다. 한 쪽은 생각에 사로잡혀 시기를 놓치고, 다른 한 쪽은 너무 성급하게 움직이다가 일을 그르치는 문제가 있다. 그렇기에 내가 내놓은 방안은 이렇다. “선택적 돈 키호테”, “선택적 햄릿”이 되는 것. 양극단의 상태에서 가장 필요한 자세는 중용(中庸)의 자세이다.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으며 두 인간상의 장점을 적절히 살려 살아가는 자세로 바람직한 인간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즉 “선택적 돈 키호테”, “선택적 햄릿”은 자신에게 부족한 두 인물의 모습을 알맞게 차용하여 선택적인 인간상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나의 경우 햄릿형 인간과 너무도 닮아있었기에, 선택적 돈 키호테의 쪽을 택하는 것이 중용에 더 가까워지는 길일 것이다. 돈 키호테의 저돌적인 모습을 의사 결정이나 선택의 순간에 차용한다면 빠른 판단으로 평소에 내가 받는 불필요한 스트레스나 좌절 등을 줄일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Soñar lo imposible soñar. (불가능한 꿈을 꾸는 것.)”**

나는 문(文): 삶과 꿈 수업을 들으며 돈 키호테라는 소설을 제대로 접하게 되었다. 맨 오브 라만차, 두려움을 모르는 남자, 여러 이름으로 알려져 있었기에 돈 키호테의 전체적인 특징은 어느정도 파악하고 있었으나 그가 정확히 어떤 인물이었는지는 잘 알지 못했었다. 그저 앞뒤 안 가리는 무모한 사람 정도로만 기억했다. 그러나 페이지를 넘기면서 그의 무모함은 아무것도 아닌 곳(Nowhere)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자기 나름의 신념과 꿈 속의 여인 둘네시아를 향한 사랑에 의거했다는 사실을 조금씩 알아차리게 되었다. 돈 키호테의 주위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의 행실을 조롱하거나 뜯어말린다. 심지어는 그가 소중히 여기던 소설책들을 모조리 불태우기도 하고, 그를 속여 마을로 데려오기도 한다. 설령 그것이 선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도, 결국 그의 신념과 사랑을 얽매고 압박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그의 친구와 이웃들은 그들의 사랑을 토대로 ‘그를 위해서’라고 말하며 그를 편력기사의 꿈에서 빠져나오게 한다. 그러나 이들이 주장하던 사랑은 과연, 둘네시아를 향한 돈 키호테의 정열적인 사랑보다 더 강하고 더 순수하다고 볼 수 있을까?
결국 그들은 돈 키호테를 속여 그의 편력기사 활동을 멈추게 만들지만, 오히려 돈 키호테는 삶의 의미를 잃고 죽고 만다. 일방적인 판단이 어느 늙은이의 눈 속에서 반짝이던 불씨를 꺼버린 셈이다. 모두가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했던 신념을 가졌지만, 그 신념으로 선한 일도 마다하지 않았던 듯이 순수한 열정과 사랑이 저돌성의 원동력이었던 것이다.
이를 이해하고 나니 돈 키호테는 나에게 기존의 무모한 늙은이가 아닌, 배워갈 점이 있는 하나의 인물로 비춰졌다.
그저 소설 속의 가상의 인물에게서 삶의 방식을 배워갈 수 있다는 게, 영감을 얻어 갈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게 느껴진다. 이 경험은 나에게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의 키팅 선생님을 떠오르게 했다. 중용에 가까운, 선택적 돈키호테형 인물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존 키팅 선생님은 스크린 너머의 나에게 많은 것을 일깨워주었다.

***“No matter what anybody tells you, words and ideas can change the world.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말과 언어는 세상을 바꿔 놓을 수 있다.)”***

 말과 언어. 나는 키팅 선생님이 이야기한 말과 언어가 글과 시, 소설까지도 포함하는 넓은 범주의 의미라고 생각한다. 이는 내가 경험한 바와 같이 작품 속 가상인물에 불과한 돈키호테라도 한사람 한사람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결국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관통하는 의미일 것이다. 자신의 내면에는 누가 있는지를 알아채고, 필요한 방향으로 그 인물을 이끌어가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글이자 언어라는 말이다. 그것이 바로 인문학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세상을 바꾸는 것, 나를 바꾸는 것은 이러한 질문들에서 시작된다. 돈 키호테인가, 햄릿인가? 당신의 내면에 숨쉬는 이는 누구인가?

***“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는 어렵다
여러분 중, 나라면 다르게 걸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스스로에게 대답해라, 왜 나도 손뼉을 쳤지?
타인의 인정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신념의 독특함을 믿어야 한다
다른 사람이 이상하다고 보든 나쁘다고 생각하든 이제부터 여러분도 나름대로 걷도록 해라
방향과 방법은 여러분이 마음대로 선택해라 “***

키팅 선생님의 말에는 돈 키호테의 더 많은 모습들이 투영되어 있는 듯하다. 각자가 가진 신념이 다르기에 자신의 신념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 타인의 인정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신념의 독특함을 믿어야 한다는 말은, 돈 키호테가 남의 시선에 상관없이 자기의 신념을 믿고 따랐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주변인들의 그릇된 방식으로 마지막에는 좌절하게 됐으나 결국 그는 그의 방식대로 걸었고 그 방향과 방법은 자신의 신념이 이끄는 대로였다고 말 할 수 있다.
키팅 선생님은 주입식 교육에만 익숙해 있던 나에게 인문학에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는 길을 안내해주었다. 인생을 다르게 살라고, 현재를 즐기라고. 학창 시절을 지나며 좋은 선생님들은 많았지만 평소에 생각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내 준 선생님은 바로 키팅 선생님이었다. 그는 내 목소리를 세상에 내는 법을 가르쳐주었다.

***“ 책을 읽을 때 저자의 생각만 고려하지 말고***

***너희들의 생각도 고려해보도록 해.***

***너희들의 목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투쟁해야 해. ”***

저자의 생각을 고려하는 것이라, 그 방법은 지금까지 우리가 학교에서 배워 왔던 문제 해결의 정석이었다. 우리는 글쓴이가 의도한 바를 파악해서 답을 고르는 방법이 당연하다 생각했고 그렇게 해야만 점수를 받아갈 수 있었다. 이러한 고정관념을 깨부수는 키팅 선생님의 이 가르침은 얼마나 신선한 충격이었는지 모른다. 주어진 이야기에서 말하려는 바를 알아채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이야기에 대해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싶은 지까지 고려할 능력이 생긴 것이다.

**“Be Yourself, Know Yourself, Love Yourself, Broadcast Yourself.”**

가끔 나에 대해 사색에 빠질 때는, 문(文) : 삶과 꿈 시간에 교수님께서 해 주셨던 한 이야기가 떠오른다. 자신을 위한 네가지 단계인 “Be Yourself, Know Yourself, Love Yourself, Broadcast Yourself.”. 너 자신이 되고, 네 자신을 알고, 네 자신을 사랑하며 너를 알리라고. 그 말을 들은 수업일로부터 몇 달이 지난 지금도 이 간단한 강령은 여전히 나를 움직이고 있다. 나의 ‘삶과 꿈’을 위해서는 먼저 진정한 내가 되어야 했다. 자신의 우상인 다른 누군가가 되려 하지 말고, 먼저 온전한 내 자신이 되어야 한다. 온전한 내가 되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파악한 다음, 그 우상에게서 배울 점을 찾아 자신에게 적용하면 되는 일이었다. 그 다음은 나를 파악하는 단계이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내가 무엇을 할 때 행복하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한다. 물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자신에게 유의미한 여정이며 내면적인 성장을 이루는 데에 좋은 양분이 된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다. 나도 여전히 내가 누구인가를 찾아가고 있고 동시에 성장하고 있기도 하다. 다음은 내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다. 돈 키호테의 무모함은, 다른 말로 하자면 그의 자신감이 라고도 할 수 있다. 그의 자신감은 과연 오직 둘네시아를 향한 사랑에서만 비롯되었을까? 상상 속이었지만, 자랑스럽고 용맹한 편력기사였던 자신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도 자신감의 큰 원천었을 것이다. 이렇듯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갖고 타인과 세상을 사랑하는 일은 결국 자신을 사랑하는 데서 시작한다. 자랑스러운, 온전한 내가 되어서야 비로소 다른 이들과 이 삶을 영위하는 세상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은 나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다. 온전한 나로서 자신의 삶과 세상을 사랑할 줄 안다면, 그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 내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된 것을 바탕으로 자신이 세상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큰 목소리로 외치는 것이다.

교수님의 그 말씀은 키팅 선생님의 말씀과 굉장히 겹쳐 있다고 생각했다. 남과 같은 길을 걸으려 하지 말고 독특하게 살라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 말이다. 키팅 선생님의 “Make your life extraordinary. (인생을 독특하게 살아라)”라는 간단한 가르침을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답을 찾은 듯했다. 수업의 주제인 삶과 꿈은 무언가 특별한 방법으로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니었다. 키팅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말과 언어를 통해 배운 것들을 통해 스스로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것이었다. 그것이 인문학이 존재하는 목적이며 인간에게 계속해서 인문학이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한다.

삶과 꿈에서, 삶은 꿈의 거울이며 꿈은 삶의 나침반이라는 해석이 참 인상적이었다. 삶과 꿈은 결코 똑같아질 수 없는 둘이다. 그러나 그 둘이 서로를 향해 닿아 있다는 의미로 들렸기 때문이다. 삶은 꿈이 될 수 없지만, 꿈을 비춰주는 거울로써 작용한다. 각각의 삶에 맞춰 꿈이 어떤 식으로 존재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역할이라는 말이다. 꿈의 경우는, 삶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지 안내해주는 나침반으로써 작용한다는 의미이다. 방향성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대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삶을 이끌어 나가는 데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깨지지 않으려면 스스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교수님의 말씀은, 삶을 수동적 태도로 일관하다가 꿈의 거울인 삶을 잃기 전에 스스로가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서 꿈을 쟁취하라는 가르침을 주었다.
삶과 꿈은 또 다른 해석으로, 삶은 문화를 가리키며 꿈은 예술을 가리킨다고 보는 관점도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살아가며 이루는 모든 모습들이 바로 문화이며 그것이 삶이란 의미이다. 또 이 문화를 바탕으로, 각자가 가진 감각으로 다양한 색깔과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예술이 바로 꿈이라는 뜻이다. 삶에 따라 사람마다 천차만별의 꿈을 그려낼 수 있다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이 두 해석을 통해 공통으로 알 수 있는 건, 모든 인간에게는 삶이 필요하고 그 삶을 풍요로이 영위하기 위해선 꿈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글을 읽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되고 글을 쓰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문(文): 삶과 꿈을 깊게 관통하는 의미는 이 사실로 귀결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Gather ye rosebuds while ye may,” The Latin term for that sentiment is Carpe Diem
Carpe Diem. Seize the day boys. Make your lives extraordinary.
"시간이 있을 때 장미 봉우리를 거두라", 이를 라틴어로 표현하면 '카르페 디엠'이다.
현재를 즐겨라. 인생을 독특하게 살아라!***

 다시 한 번 키팅 선생님의 수업으로 되돌아가 보자면,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여기에 담겨 있는 듯하다. 카르페 디엠(Carpe Diem), 시간이 있을 때 장미 봉우리를 거두라는 말. 그럴 능력이 있고, 그럴 열정이 있을 때 행하라는 의미일 것이다. 그것도 즐기면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과거에 얽매이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에 묶여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기도 한다. 정작 중요한 ‘현재’에는 무엇이 있는지 제대로 보질 못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쟁취하지 못한다. 한 발짝 전진해서 과거는 가슴 한 켠에 묻어두고 현재를 위한 지침으로 활용하며, 미래는 현재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으로 삼는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장미 봉우리를 좀 더 쉽게 거둘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이야기 속의 햄릿을, 돈키호테를, 키팅 선생님을 나의 내면에 조그맣게 모셔두고 나를 위해 질문을 던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문(文)의 이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